



농협 전주시지부, 만수초 학생 대상 교육 진행

농협 전주시지부가 전주민수초등학교(교장 김종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밥 먹기 교육과 어린이들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한 행복채움 금융교실을 운영했다.

또한, 일일 어린이 농부가 된 학생들은 모내기 및 상추수확 등 농사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성장이 어린이들에게 아침밥 먹기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밥과 쌀에 대한 오해 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아울러, 농협은행 전북본부에서는 돈과 금융이야기, 용돈관리 등 어린이들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행복채움 금융교실을 운영했다.

이어, 하양진 지부장, 김희수 교감은 일일 농부가 된 학생들과 지난 4월 텃밭 상자에 아이들이 손수 심은 상추를 수확해보고 벼 상자를 이용한 손모내기 체험 등의 농사체험을 함께하며 아이들과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Hug Farm 금융교육' 성료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최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북 본부 4층 청소년 금융교육체험관에서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Hug Farm 금융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금융교육으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소통하며 금융의 기초 개념과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즐겁게 익히도록 구성되었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은행원 체험 △핀테크 금융게임 △허그팜 농산물 구매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올바른 금융습관을 익혔으며, 아침밥에 대한 소중함과 아침밥 인식개선과 균형 잡힌 식습관의 중요성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오상근 기자



구천동농협 임직원, 사랑의 성금 전달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지난달 30일 조합장실에서 '임직원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열고, 임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구천동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것으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기전대, 지역 아동 대상 요리체험 재능기부

전주기전대학 호텔외식조리과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지원 봉사센터와 협력해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요리 체험 봉사 프로그램 'JK 푸드쉐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조리 전공 대학생들이 주체가 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아동센터 소속 아동들이 전주기전대학을 방문해 조리 체험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JK 푸드쉐어'는 전주기전대학 호텔외식조리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봉사 동아리로, 조리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형 교육 봉사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사전에 체험 대상 아동의 연령대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해 칼질, 간단한 조리 기술, 위생교육 등 기초 실습 활동을 중심으로 아동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요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박종일 교수팀, 치매 위험 예측 연구 ‘성과’

정신행동증상, 노인 치매위험 최대 1.4배... 연구결과 Biological Psychiatry 6월호에 실려

우울·무감동 등 정신행동증상을 보이는 노인의 치매 위험이 무증상군보다 1.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북대교병원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박종일 교수 연구팀(제1저자)이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노인정신의학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밝힌

노인의 치매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종일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지저하를 가진 노인에서 우울, 불안, 무감동 등의 정신행동증상이 동반될 경우 인지기능이 더욱 빠르게 저하되고 알츠하이머 치매로의 진행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 교수팀의 연구 논문 '정신행동증상의 실증적 유형 분류 및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병 환자군에서의 유형별 진단 전환과 인지 저하와의 연관성' (Empirical Classification of Neuropsychiatric Symptoms and Association of Classes With Diagnostic Progression and Cognitive Decline in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Alzheimer's Disease Populations)은 정신의학 및 뇌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 성과들을 다수 게재해 생물학적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Biological Psychiatry(IF 9.6) 6월호에 실린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뇌영상 선도연구(ADNI)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해 1,472명의 경도인지장애



(MCI) 및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행동증상의 유형을 잠재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 기법으로 분류하고, 최대 5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인지기능 변화와 치매 진행 위험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신행동증상이 거의 없는 '무증상군' (51.7%) △우울·불안·무감동 등이 중심인 '무감동/정서증상군' (39.8%) △다양한 정신행동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증상군' (8.5%)의 세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이 중 '무감동/정서증상군'은 전체 환자의 약 4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 집단은 기억력 저하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고,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치매로의 진행 위험이 무증상군보다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정신행동증상이 단순한 동반 증상이 아니라, 치매로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임을 보여준다"며 "특히 우울, 무감동, 불안 등의 증상이 동반된 경우 치매로의 진행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순창군 - 담양군, 지자체 간 상호 우정과 상생 의지 다져

양 군 간 고향사랑기부금기탁

순창군과 담양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간 우정과 상생의 의지를 나누며 의미있는 교류를 이어갔다.

지난 30일 최영일 순창군수와 정철원 담양군수가 양 지자체를 대표해 서로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날 최영일 군수는 담양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이에 화답해 정철원 담양군수도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해 두 지자체 간의 우의를 돈독히 했다.

양 군은 그동안 농촌융복합 이용체계 개편사업 등 다양한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는 구례·곡성·순창·담양 4개 군이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대표 장수지역으로서 어르신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100세 잔치'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그동안 여러 협력사업을 통해 돈독한 인연을 이어온 순창군에 대한 응원의 마음으로 이번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호남권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두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정철원 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담양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형 기자

‘천년송’ 지켜낸 와운마을, 도지사 단체 표창 수상

비상소화장치 활용 산림화재 확산 저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달 30일 도청 3층 소방본부장실에서 지리산국립공원 내 산불 발생 초기 대응에 기여한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와운마을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단체 표창을 전수했다.

전수식에는 공성훈 와운마을 이장과 노군포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해 소방본부장, 119종합상황실장, 화재조사팀장, 인월119안전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표창은 지난 5월 1일 새벽 2시 27분경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을 인정해 수여한 것이다.

당시 화재는 강한 바람 속에서 자칫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으나, 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와 소화기, 양동이, 삽 등을 활용해 초기에 진화하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신고자는 화재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한 뒤 마을이장에게 상황을 전했고, 이장은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긴급 상황을 전파한 후 현장으로 달려가 비상소화장치를 가동했다.

주민들은 각자 준비된 소방 장비로 신속하게 대응해 마을 공동체의 초기 대응 역량을 발휘했다. 이번 사례는 공동체 중심 화재 대응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런 마을이 진정한 의미의 안전마을"이라며 "지역 주민의 빠른 판단과 실행력이 산불 확산을 막고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공성훈 와운마을 이장은 "산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아서 최근 소방공무원에게 배운 비상소화장치 사용법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소방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고, 앞으로도 마을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 황토현농협, 소외계층 위한 사랑의 반찬나눔

정읍 황토현농협(유형기 조합장)은 최근 홀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관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84세대를 대상으로 반찬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토현농협 농가주부모임이 직접 재배한 배추와 열무, 양파 등을 활용해 열무감자와 양파감치, 사골곰탕 등을 준비했다.

준비한 반찬은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윤봉읍, 농촌돌봄 공동체사업 추진

남원시 윤봉읍(읍장 이은주)이 2025년 들어 먹거리 취약가구를 위한 돌봄 사업을 한층 강화해 주민 중심의 복지체계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사업' 공모에 (사)남원지역활력혁신센터(대표 이지선)가 참여해 윤봉읍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총 35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오는 5월 29일부터 11월까지 13회에 걸쳐 제철보양식, 명절 음식 등 계절에 맞는 맞춤형 돌봄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며, 돌봄 음식 외에도 '소소한 집수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 집수리 봉사 동아리를 모집 중이다.

본 사업은 센터,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윤봉을 생활지원사, 읍 맞춤형복지팀, 목공기술 재능기부자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중심이 되는 민관협력형 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주문화재단 등, 지역문화 향유 확대 협약 체결

(재)원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이 지난달 29일, 원주 휴시네마에서 신례생활문화센터 및 원주인재육성재단과 지역문화 향유 확대 및 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주 지역 아동·청소년과 원주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단체관람 운영 및 문화 프로그램 홍보 활성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원주문화재단 정철우 상임이사를 비롯해 삼례생활문화센터, 원주인재육성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상호 간 협력체계를 통해 원주주민이 더 쉽고 자주 문화·예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철우 원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많은 아동과 청소년, 원주주민이 다양한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휴시네마는 앞으로 두 기관과 연계해 단체관람 프로그램 안내, 홍보자료 비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장수경찰서, 영예로운 승진 임용식 개최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지난달 30일, 경찰서 서장 집무실에서 서장, 각 과장, 동료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근속 승진 임용식을 가졌다. 이번 승진 임용식에서는 범죄예방대응과 행정서기보 김민정이 행정서기로 승진하였으며, 임용장 수여, 동료 직원들의 꽃다발 전달, 기념촬영, 서장님과의 티타임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민정 행정서기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서장님과 축하해주신 모든 동료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배려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황재현 경찰서장은 "영예로운 승진임용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수행하는 장수경찰서 직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정읍경찰서, 안전띠 착용 생활화 전광판 홍보 활동

정읍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안전띠 착용 생활화' 캠페인으로 다중이용시설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며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홍보는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전개에 나서 통행량이 많은 관내 정일중 주변, 정읍역 사거리 등 대형전광판에 홍보영상을 송출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인식 개선이 시급하기에 안전띠 미착용 위험도로 선정하여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띠 착용 일상화 전단지 를 나눠주며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인후지사 246-6855	남원지사 632-3996	진안지사 433-3064	익일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김제지사 545-1227	임원지사 632-0986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정수지사 010-3682-6157	
호지지사 010-8645-9935	군산지사 010-6789-0038	고창지사 563-6999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9-992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